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marital Adult Child's Perceived Self-Differentiation and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between Parent and Child on Trait Anxiety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권 미 애
박사과정 김 필 숙
박사과정 박 지 현
교 수 김 태 현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Kwon, Mi-Ae

Doctoral Course : Kim, Phil-Sook

Doctoral Course : Park, Ji-Hyun

Professor : Kim, Tae-H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remarital adult child's perceived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child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on trait anxiety. The subjects of the study numbered 277, and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was used with SPSS 10.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It was shown that self-differentiation, over involvement and perceived criticism of premarital adult children were correlated with trait anxiety. And, among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income, and marital status of the subjects' parents were related with trait anxiety.

2. Parent-child differentiation, over involvement, perceived criticism, and sex had direct effects on

premarital adult child's self-differentiation. The variables that had direct effects on trait anxiety, which was the final dependent variable were self-differentiation, parent-child differentiation, perceived criticism, and income while over involvement an indirect effect on it.

주제어(Key Words): 미혼성인자녀(Premarital Adult Child), 부모-자녀분화(Parent-Child Differentiation), 자아분화(Self Differentiation), 특성불안(Trait Anxiety)

1. 서론

현대 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의 제도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 또한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서구의 핵가족 개념의 도입은 가족의 형태를 변화시켰고, 이에 맞추어 가족 연구는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부분 가족의 형태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수평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기능 면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근원가족의 부모가 핵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확대 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남순현, 2000), 이는 가족 내 정서적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초기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족 간 결속력이 후기 성인자녀-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성인자녀의 초혼연령 증가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타의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있는 부모-자녀관계 특성과는 달리 미혼성인자녀-부모 관계 내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성인자녀-부모관계는 아동기 자녀-부모관계와는 매우 다른 역할 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Galinsky의 부모됨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떠나보내기'에 해당되는데,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정현숙, 유계숙, 2001: 410),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새로운 유대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Burr, Day & Bahr(1993)는 세대 과정은 영속적이

며, 변화되기 어렵고, 한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은 이전 세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전 세대에 대한 의존성이란 자녀가 지지의 원천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갖는 것으로(Cohler & Grunebaum, 1981), 이것은 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 세대에 대한 의존성은 초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상호 의지하게 되고 서로 간에 상호 교류가 더욱 잦아지면서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은 세대간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대간의 상호 자원과 봉사를 교환하게 한다(Cohler & Grunebaum, 1981; 남순현, 한성열, 2001). 즉, 자녀를 떠나보내는 단계가 되면서 세대간 상호교류, 다시 말해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미혼성인자녀-부모 관계에서 세대간의 정서적 상호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족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 상호관계, 특히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며,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분화, 불안 및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ronfenbrenner & Mahony, 1975; Stevens & Mothews, 1978; 백양희, 1998). 또한 혈연에 의해 결합된 부모-자녀관계의 체계는 가족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기능을 갖는다(이기숙, 1985; 백양희, 1998)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구조 내의 인간관계적 역동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역동성과 자녀의 심리적 문제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에서는(백양희, 1998; 남순현, 2000; 전영주,

1998) 가족 내 정서체계와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가 성인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유의미한 상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owen의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의 구조를 잘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개인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역동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Bowen(1978)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병리적인 측면을 이전 세대들이 현재대로 전수한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보았다. 즉,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은 가족자아집합체는 개인에게 만성적인 불안을 초래하게 되며, 원가족과의 자율적인 자기분화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부모는 자신의 부적합성이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의 자아분화 정도는 부모와의 관계를 애정적인 국면으로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의 국면으로 유도하느냐라는 정서적 자주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을 일으켜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전영주, 1998). 그러므로 건강한 개인이란 불안수준이 낮고, 원가족으로부터 자율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진 동시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owen은 불안을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정서장애를 야기하는 핵심 정서로 보았으며, 가족구성원들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불안은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거리감의 정도를 조절 한다(Friedman, 1991). 가족 내 한 개인이 구성원들로부터 과도한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한다면, 개인의 불안은 가족에 대한 거부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 친밀감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가족 내 한 개인이 구성원들로부터 과도한 친밀감을 경험한다면, 개인의 불안은 가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 가족구성원들 간의 과도한 친밀감에서 야기되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은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폭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핵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원가족과 과도하게 일체감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혹은 분리되고자 하는 적대감을 갖게 될 때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은 또한 여러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이

병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전수된다(남순현, 한성열, 2001; Gurman & Kniskern, 1991).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인의 내적 역동을 살펴보는 것 외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한 개인만의 내적인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가족체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최근 들어, 초혼연령 증가로 인하여 미혼성인자녀와 부모 간에 맺게 되는 관계의 질은 더욱 더 강조되면서 부모-자녀 간에 갖게 되는 심리적 유대와 결속으로 인하여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을 부모-자녀분화 수준과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으로 구성하고, 부모-자녀간 가족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특성불안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성인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및 가족 내 표현된 정서(과다관여, 지각된 비난), 특성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각 독립변인들이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분화 및 부모-자녀분화와 특성불안

오늘날 가족의 관계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가족연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은 상호작용 하는 구성원들의 복합체로서 체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양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순현, 한성열, 2002). 이러한 연구의

변화는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역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 역동성이 개인의 성장, 발달, 정체감 형성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기능적인 관계를 치료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낳게 했다.

가족치료자들 중에서 가족역동성의 개념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사람은 Bowen(1978)으로서, 그의 이론의 중심적인 개념은 자아분화(Self Differentiation)이다. 자아분화는 개인의 자아가 가족 자아집합체(family ego mass)로부터 분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리와 연결성 간의 균형으로, 사고와 느낌을 분리시킬 수 있는 개인의 정신 내적 측면과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분화는 개인의 정신내적 측면에서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Bowen(1978)은 또한 개인 및 가족 성원이 갖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전영주, 1998). 즉,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 및 가족은 객관성, 독립성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스트레스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전춘애, 1994)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하면서 확고한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가정의 조화를 위하여 또는 강요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화된 사람은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객관성과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송정아, 최규련, 2004: 87-88) 자기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자각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Hollander, 1983).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자아개념의 발달이 미약하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정서적 균형이 어려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상처를 받는다(이신숙, 2000). 그러므로 이러한 자아분화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으로서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분화가 개인변인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모-자녀분화는 가족분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서, 가족 안에서 개인의 정서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분화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남순현, 2000).

부모-자녀분화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의 태도가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자녀에게 안정감,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백양희, 1998). 그러므로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abatelli & Anderson, 1991), 이는 보다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Gavazzi(1993)도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분화수준이 낮은 자녀는 밀착된 관계성을 보이고,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며, 가족 내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친구관계에서의 문제, 우울, 불안 등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성격 특성으로서 특성불안을 높게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성불안이란 광범위한 여러 종류의 상황들을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긴장, 우려, 근심 등의 불안 상태로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말한다(Spielberger, 1972; 백양희, 1998). 그러므로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위협성을 지각하며, 자아평가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자기비하의 태도를 가져오게 된다(백양희, 1998). 또한 가족관계나 교우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약하며, 위협 지각도 더 높게 나타난다(김정택, 1987).

이러한 특성불안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성격이나 신체증상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서 불안이 높아질수록 결속(친밀감)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가족체계 내 융합과 편가르기(we-they faction)의 현상이 나타난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전영주, 2002).

자아분화 수준과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특성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덜 분리될수록 자신에 대한 존재와 책임을 떠맡는데 대해 더 많은 불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백양희, 1998). 또한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불안이 높게 나타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정보다는 의존적으로 환경을 지각하고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정미란, 1994).

이러한 결과 자아분화는 개인의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뿐만 아니라 가족역동성인 부모-자녀간의 친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분화는 자녀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분화는 성장 후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초기경험이 성격 발달, 대인관계, 그리고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지각하게 되는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자녀분화수준에 따라 부모-자녀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라는 역기능적인 상황에 따라 성인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상호간의 지원을 나타내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 분화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특성불안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가족 내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미혼성

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 내 표현된 정서와 특성불안

정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모든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갈등(emotional conflict)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Kring, Smith & Neale, 1994; King & Emmons, 1990; Larson & Diener, 1987;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이러한 정서는 유발되는 정서를 느끼고 감지하는 경험 정서와 경험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표현 정서로 나눌 수 있는데(우소연, 2002),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정서표현과 심리적 안녕 및 신체적 안녕 간에 관심을 갖고 정서표현이 건강이나 질병의 기능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King & Emmons, 1990; King, Smith & Neale, 1994; Rivkin, 2000).

특히, 가족 내 표현된 정서(expressed emotion)는 Brown과 그의 동료들이 1958년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질환을 연구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퇴원 후 재발된 비율이 높음을 보고 착안하여 연속적인 연구를 통해 Brown등(1972)은 '표현된 정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표현된 정서는 가족 내에서 표현하는 비난(criticism), 적대감(hostility), 온정(warmth), 긍정적 발언(positive remarks), 정서적 과다관여(emotional over involvement)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환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정서적 상호작용을 측정할 결과 표현된 정서가 높은 가족은 환자가 악화되고 재발이 되었으며, 가족과의 접촉이 적고 정서의 양, 적대감, 지배적이거나 지시적인 행동, 환자가 그의 가족에 대해 표현하는 정서 등 가족의 강한 정서적 표현이 정신질환 재발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지연, 1999). 표현된 정서는 가족 내의 정서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반

응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아닌, 특정인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가족의 특질적 성격으로 보았다. 이는 표현된 정서의 양이 가족 내 상호작용 질의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반면, 표현된 정서가 낮은 가족은 차분하고, 감정이입을 잘 하며, 환자를 존중해 주는데 반하여, 표현된 정서가 높은 가족은 걱정과 성가심을 잘 표현하고, 공감적이지 않으며 정서적 지지를 보이지 않으며(Leff & Vaughn, 1985), 또한 참견을 많이 하고(Hahlweg, Goldstein, Nuechterlein, *et al.*, 1989; Miklowitz, Goldstein, Fallon, *et al.*, 1983; Strachan, Goldstein, Miklowitz, 1986; Szmukler, Berkowitz, Eisler, *et al.*, 1987; Valone, Norton, Goldstein, *et al.*, 1983), 상호작용에서 융통성이 적고, 강압적이고, 긴장되어 있으며(Hubschmid & Zemp, 1989), 대인관계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MacCarthy, Hemsley, Shrank-Fernandez, *et al.*, 1986; 차지연, 1999).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적으로 유사한 정서인 우울과 불안 중 우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차지연(1999)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 중 지각된 비난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관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oley & Teasdale(1989)은 가족 내 표현된 정서, 부부간의 불화, 그리고 지각된 비난 등으로 입원한 단극성 우울증 환자의 재발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모두 우울의 재발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지각된 비난이 우울의 재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이는 가족이 실제로 표현하는 비난의 정도보다는 얼마나 비난으로 지각하느냐의 정도가 더 중요함을 의미하고, 비난을 많이 지각하는 환자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표현되는 정서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심리 상태 중의 하나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가족 내 표현된 정서를 우울증과의 관계(Vaughn, Leff, 1976; 차지연, 1999; Hooley & Teasdale, 1989)를 토대로 이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로 분류되는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우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정서(변혜정, 최외선, 1999)로 Spielberg(1972)는 불안을 일시적인 정서상태로서의 '상태불안(State Anxiety)' 과 비교적 항구적인 성향 또는 특성으로서의 '특성불안(Trait Anxiety)' 이 있음을 설명하였다(백양희, 1999). 즉,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고 유동적인 조건 또는 일시적인 정서상태이며,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지각된 긴장, 우려 등의 감정과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특성불안은 기본적으로 불안성향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아 보려는 것이다. 특성불안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광범위한 자극들에 대해서 위협을 경험하며,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권순실, 2002; 이영식, 정선호, 1996). 또한, 홍창희(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신건강의 하위 영역인 불안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표현되는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우울이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요인들로 밝혀진바 있다(차지연, 199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가족 내 표현된 정서와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특성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현된 정서 중 특히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이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 변인들이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문제인 특성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혼성인남녀로 연구 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77명(남자: 142명, 여자: 135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20일~9월 12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의 연령층으로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정서와 그들이 부모와 형성하는 정서체계 역동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한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자료는 총 310부를 배포하였고, 29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통계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33부를 제외하고 최종 277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성인자녀의 평균 연령은 31.97세로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0.8%, 대학원 이상이 17.3%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이하가 53.1%, 300만원이하가 22.0%로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무교인 경우가 41.9%, 불교와 천주교

의 경우 보다 기독교의 비율이 31.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구성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와 본인이 함께 사는 경우가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성인자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평균 연령의 경우 아버지 62.15세, 어머니 58.37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가 66.4%, 대졸 26.7%를 차지했으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83.4%, 대졸 14.8%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 형태는 87.4%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와의 정서체계 역동성을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이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분 류	N	(%)	변 인	분 류	N	(%)
성 별	남 자	142	51.3	부의 연령	65세 이전	203	73.3
	여 자	135	48.7		65세 이후 (평균 : 62.15세)	55	19.9
연 령	35세 이전	242	87.4	모의 연령	65세 이전	251	90.6
	35세 이후 (평균 : 31.97세)	35	12.6		65세 이후 (평균 : 58.37세)	22	7.9
학 령	고졸이하	32	11.6	부의 학력	고졸이하	184	66.4
	대 졸	196	70.8		대 졸	74	26.7
	대학원 이상	48	17.3		대졸이상	11	4.0
직 업	무 직	17	6.1	모의 학력	고졸이하	231	83.4
	생산서비스직	36	13.0		대 졸	41	14.8
	사 무 직	176	63.5		대졸이상	3	1.1
	관 리 직	7	2.5				
	전 문 직	41	14.8				
소 득	100만원이하	54	19.5	부모의 결혼 형태	혼인상태	242	87.4
	200만원이하	147	53.1		비혼인 상태	35	12.6
	300만원이하	61	22.0				
	301만원이상	15	5.4				
종 교	무 교	116	41.9	가족형태	조부모+부모+본인	30	10.8
	불 교	45	16.2		부모+본인	204	73.6
	천 주 교	29	10.5		아버지+본인	6	2.2
	기 독 교	86	31.0		어머니+본인	28	10.1
	친인척+본인	9	3.2				
합 계		277	100.0	합 계		277	100.0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12문항과 자아분화 척도 10문항, 부모-자녀분화 척도 20문항과 가족정서 과다관여 및 비난척도로 과다관여 4문항과 지각된 비난 6문항, 총 10문항과 특성불안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아분화척도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level of differentia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Differentiation of Scales)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의 5개 하위(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척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검증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36문항 중 총 10문항을 가족학 분야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 검사를 받아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에 대한 경향성은 전체 40점 만점 중 평균은 23.36으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2) 부모-자녀 분화척도(PCDS)

부모-자녀 분화척도(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는 연결성(친밀성)과 관계된 10문항과 분리성(자율성)에 관한 10문항으로, 전체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질문지이다. 구성된 문항들은 모두 기존의 측정도구들이인 PAFS-Q, FACES II, DIFS 등으로부터 추출되어진 것들로 가족체계이론과 정상가족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다(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Olson, D., Bell., Portner, J, 1981; Williamson, D. S., Bray, J. H., & Malone, P. E, 1984; 전영주, 1996).

점수 결과 해석에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결성(친밀성), 분리성(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성이 보다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반면,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와의 연결성

(친밀성), 분리성(자율성)이 이뤄지지 않아 밀착된 관계성을 보이며,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성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가 .82~.92까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전영주, 199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미혼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와의 분화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9.07로 중간 값 이상의 점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가족 정서 과다관여 및 비난 척도(FEICS)

Brown과 그의 동료들(1972)이 제안한 표현된 정서의 핵심 개념으로 비난과 정서적 과다관여의 지각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정서과다관여및비난척도(FEICS: FamilyEmotionalover Involvement and Criticism Scale)가 개발되었다. Brown과 그의 동료들이 언급한 표현된 정서는 가족 내에서 표현하게 되는 비난(criticism), 적대감(hostility), 온정(warmth), 긍정적 발언(positive remarks), 정서적 과다관여(emotional over involvement)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언급하였다(Leff & Vaughn, 1985).

이처럼 표현된 정서의 5가지 핵심 개념 중 2가지 개념만으로 구성된 FEICS는 가족 내 표현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Shields, Franks, Harp, McDaniel, Camberwell, 1992)로서 가족 내 구성원들이 지각하게 되는 비난(criticism) 7문항과 정서적 과다관여(over involvement) 7문항인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점수 분포는 가족 내 상호작용 하는 역동성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EICS의 총 14문항 중 지각된 비난 4문항과 과다관여 6문항을 재구성하여 총 10문항만을 사용하기 위해 가족학 분야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63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의 정서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한 과다관여는 30점 만점에 평균 18.26점, 지각된 비난은 20점 만점에 14.65점으로 나타났다.

4) 특성불안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개인의 불안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Spielberger(1976)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불안 척도 20문항을 김정택(1978)이 번안하여 국내사정에 맞게 표준화시켜 측정된 것을 토대로 그 중 특성불안 (Trait Anxiety)을 측정하는 15문항만을 채택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 또한 가족학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안면 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정하여, 최종 구성을 만족감 6문항, 긴장 및 불안감 7문항, 자신감 5문항, 침착성 2문항의 4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결과 해석은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특성불안은 60점 만점에 48.60으로 중간 값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척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아분화,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특성불안의 일반적인 경향

	M	SD	Cronbach's α	범 위
자아분화	23.36	3.0	.60	10~40
부모-자녀분화	69.07	9.70	.93	20~100
가족 내 표현된 정서				
과다관여	18.26	2.51	.63	6~30
지각된 비난	14.65	2.87		4~20
특성불안	48.60	5.37	.82	15~60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혼성인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및 가족 내 표현된 정서(과다관여, 지각된 비난), 특성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경로계수에 따른 모형을 작성하였다. 그 밖의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일

반적 경향과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미혼성인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및 가족 내 표현된 정서(과다관여, 지각된 비난), 특성불안의 상관관계

1) 주요 변인과 특성불안의 상관관계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이 특성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은 주요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선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r=-.48, p<.01$),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r=-.37, p<.01$)와 지각된 비난($r=-.29, p<.01$)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분화 수준과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r=.58, p<.01$)와 지각된 비난($r=.28,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r=.26, p<.01$)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r=.58, p<.01$)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이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근원가족의 부모가 핵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남순현, 2000), 이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력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자녀분화가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불안해 하거나 현신적이고 과잉 보호적인 표현된 정서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차지연, 1999).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종속변인인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과 독립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성인자녀가 지

〈표 3〉 주요 변인과 특성불안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독립 변 인				종속변인 특성불안
	1	2	3	4	
1. 자아분화	1.00				-.48**
2. 부모-자녀분화	-.48**	1.00			.49**
3. 과다관여	-.37**	.58**	1.00		.33**
4. 지각된 비난	-.29**	.28**	.26**	1.00	.29**

* $p < .05$, ** $p < .01$, *** $p < .001$

각하는 자아분화, 부모-자녀분화,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은 낮게 나타났다($r = -.48, p < .01$).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는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통하여 확고한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며(전춘애, 1994), 가족 및 개인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의 수준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부모-자녀분화는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r = .49, p < .01$). 이는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고(Sabatelli & Anderson, 1991), 반대로 부모-자녀관계의 분화수준이 낮은 경우 밀착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 학교,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나 갈등,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Gavazzi, 1993)는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의 개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라기보다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개체로 보고 가족원간의 긴밀한 유대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불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며 밀착된 관계를 이상적인 가족관계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유영주(2005)가 한국 가족의 건강성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성(we-nes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성(we-ness)'은 서구가족의 commit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로 '헌신'이라 표현된다. 이러한 commitment는 서구 가족에서는 개인과 가족 간의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commitment는 그 내포되는 의미가 다소 다르다. 즉, 경계선의 명확성보다는 경계선을 초월한 '우리'라는 의식 하에서의 commitment가 되는 것이며, 결국 commitment라는 용어보다는 우리성(we-ness)이라는 말이 한국 가족의 commitment를 더 잘 설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성(we-ness)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불완전 부분자(imperfect partial individual)라는 개인관 및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Markus와 Kitayama가 말하는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에 가까운 개인관이다(Markus & Kitayama, 1991; 유영주, 2005).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부단히 다른 부분자들을 우리 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우리 속에 포함된 부분자들 간의 우리성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곧 인간관계의 1차적 기본 축이 된다. 한국인에게 우리와 우리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속의 사람들이 동질적인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뜻하며, 이러한 동질성이 곧 "우리"이며 가족을 떠난 사람과의 우리성(we-ness)은 바로 이러한 "가족성 우리"의 확대-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의 특성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자녀 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이나 우울이 적어진다는 서구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우리성'이라는 한국적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너무 높은 분화수준은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Knudson-Martin, 1994).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부모-자녀 간 높은 수준의 분화는 부모-자녀간의 친밀도와 유대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미혼성인자녀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측면과 함께 가족 외적인 요인들에 의한 역기능적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미혼성인자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r=.33, p<.01$)와 지각된 비난($r=.29, p<.01$)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이 높을수록 특성불안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은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가 높은 가족은 상호작용에서 융통성이 적고, 강압적이며, 일상생활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Hubschmid & Zemp, 1989),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와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을 높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특성불안의 상관관계

미혼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지닌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특성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성인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가족형태, 종교, 부모의 연령과 학력은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혼성인자녀

의 학력, 소득, 부모의 결혼형태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미혼성인자녀의 학력($r=.23, p<.01$)과 소득($r=.17, p<.01$)은 특성불안에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들로서 전영주(199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성인 자녀의 경우 가족 밖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김성식(2003)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성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인 경우가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성향이 더욱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결과가 최영수 외(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미혼성인자녀의 학력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미혼성인자녀들의 높은 학력수준과 소득이 심리적인 부적응 현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를 사춘기로부터 시작하여 결혼과 직업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상주, 1977)으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의 증가 및 초혼연령의 증가 등으로 청년기의 연장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고려할 때, 표면적으로 연령은 30대의 성인기에 있으나 내면적인 가족관계 측면은 부모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Minuchin(1974)은 자녀가 청년기에서 성인초기 시기에 이르기 까지 가족 내에서 겪는 변화를 가장 일반적인 발달상의 스트레스로 지적하였다. 청년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부모는 자녀의 이탈과 분리를 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이진하, 2004). 이러한 발달적 위기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긴밀하고 역동적인 가족체계로 성숙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갈등과 긴장이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이후의 발달단계로 이행되면서 문제 상황을 고조시키게 된다. 청년기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특성불안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 인구통계학적 변인	종속변인 - 특성불안
성 별	-.05
연 령	.01
학 력	.23**
직 업	.08
소 득	.17**
가족형태	-.09
종 교	.10
부모의 결혼형태	-.17**
부모의 연령	-.04
부모의 학력	.03

* $p<.05$, ** $p<.01$, *** $p<.001$

는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이성 관계, 확신 있는 직업선택,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이후 발달과제 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력과 소득이 높으면서 특성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내면적으로는 독립을 이루지 못한, 특히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30대의 미혼 성인 자녀들이 가족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성불안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부모의 결혼형태($r=-.17, p<.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특성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부모의 결혼 상태는 중요한 원가족의 건강성과 연관되어 결혼이전인 성인자녀의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됨과 동시에 정서적·심리적 영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은 후기 청소년들의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원가족 영향의 매커니즘으로 불안이 원가족의 응대와 통제를 중재하는 매개요소임을 밝히고 있다(전영주, 2002). 국내 연구 중에서는 남순현(2000)의 연구에서 삼세대의 가족분화 전수과정이 불안과 행복감에 의해서 매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혼성인자녀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게 작용하는 측면보다 부모의 결혼형태에 따라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안에 관해 좀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각 독립변인들이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분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특성불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얻은 경로모형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내생 변수(endogenous variable)인 자아분화를 외생변수인(exogenous variable)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에 대해 회귀하였고, 둘째, 자아분화를 포함하여 최종 종속변인인 특성불안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중심으로 <표 5>에 정리

<표 5>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자아분화		특성불안	
	B	β	B	β
부모-자녀분화	-.34	-4.71***	.24	3.31***
과다관여	-.16	-2.31*	.01	.22
지각된 비난	-.19	-3.09**	.11	1.82*
성 별 ¹⁾	.14	2.39**	-.05	-.80
소 득	.10	1.64	.12	2.17*
자아분화			-.35	-5.44***
상수	36.03		48.64	
R ²	.32		.38	
F값	7.99***		9.73***	

* $p<.05$, ** $p<.01$, *** $p<.001$ 주1) 성별: 1= 여자, 0=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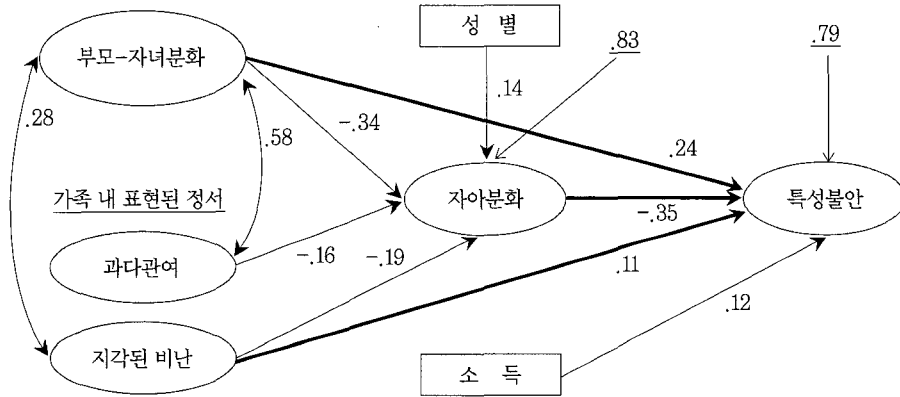
되었으며, <그림 1>은 경로분석에 따른 변수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만으로 경로분석 모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인과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모-자녀분화($\beta=-4.71, p<.001$),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beta=-2.31, p<.05$), 지각된 비난($\beta=-3.09, p<.01$)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총 8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자녀분화는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 수준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 부모-자녀분화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남순현, 2000),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보다 잘 적응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분화는 성장 후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통하여 가족과의 관계 및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상황도 잘 적응하고 개인의 심리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부모-자녀

<표 6>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자아분화와 특성불안의 직접 및 간접효과 분석

	자 아 분 화			특 성 불 안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부모-자녀분화	-.34	-	-.34	.14	.12	.26
가족 내 표현된 정서						
과다관여	-.16	-	-.16	-	.06	.06
지각된 비난	-.19	-	-.19	.11	.07	.18
자아분화	-	-	-	-.35	-	-.35
성 별	.14	-	.14	-	-	-
소 득	-	-	-	.12	-	.12



<그림 1> 특성불안에 대한 독립변인과의 경로모델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할지라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요인이 아닌 미혼성인자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족 외적 요인들에 의해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성(we-ness)'이라는 가족 결속에 의한 특성에 따라 개인이 아닌 '가족'에 중심을 두는 한국사회 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특성인 특성불안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수준에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차지연, 1999). 즉, 가족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족 내 표현되는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가족간에 서로 비판적이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관여와 비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때,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도 낮게 나타내게 되며, 낮은 자아분화수준으로 인하여 자아발달이 미약하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정서적 균형이 어려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전춘애, 1994).

한편, 통제변인들 중에서 성별($\beta=2.39, p<.01$)이 미

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성인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인 딸이 아들보다 분화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전영주, 1998)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인 딸들이 성인아들들보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가깝고 더 자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돕는다는 선행연구들(Shehan & Dwyer, 1989; 전영주, 1998)로도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분화에 있어 미혼 여성들이 미혼 남성들보다 개인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내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의해서도 분화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 종속변수인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로모형을 통하여 총 79%를 설명하고 있다. 특성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분화($\beta=3.31, p<.001$), 자아분화($\beta=-5.44, p<.001$),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지각된 비난($\beta=1.82, p<.05$)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는 미혼성인자녀 개인의 자아분화를 통하여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저, 부모-자녀분화는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부모와의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은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친밀성과 부모-자녀 각 개인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성이 보다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이며 가족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장에 있어 개별성과 자율성이 발달되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인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며(Allison & Sabatelli, 남순현, 한성열, 2002, 전영주, 1998), 심리적으로도 잘 적응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부모-자녀분화 수준은 높으나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

각하게 되고, 이는 가족 내 부모-자녀간의 분화수준을 높여 가족 내에서 개인이 겪게 될 스트레스가 적게 된다(남순현, 한성열, 2002). 그러나 미혼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성과 분리성이 높아 가족 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미혼성인자녀의 경우 가족 내적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 외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과다관여의 경우 특성불안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자아분화를 통한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과다관여가 적을수록 미혼성인자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은 높게 나타나, 특성불안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된 비난은 특성불안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가족 내에서 표현되는 비난이 높을수록 특성불안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져 특성불안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백양희, 1998). 한편, 통제 변인들 중에서 미혼성인자녀의 소득($\beta=2.17, p<.05$)이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직장 생활 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혼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성향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영수 외(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미혼성인자녀들의 경우 소득은 높으나,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장에서 업무 분화 등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

모-자녀간의 정서체계 역동성을 부모-자녀분화 수준과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을 통해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로서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분화 수준과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분화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에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은 특성불안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분화는 특성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분화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불안도 높게 나타나,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서 유대관계나 친밀성과 분리성의 정도가 높아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미혼성인자녀의 가족 내적인 요인으로서 강한 가족 결속력과 가족 외적인 요인으로서 가족 외적 상황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요인에 작용하여 특성불안이 더 높게 나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은 특성불안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 내에서 표현되는 과다관여와 비난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덜 이루어지며,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적대감이나 부정적 감정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성인자녀가 가족 내에서 표현되어지는 과다관여나 지각된 비난이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특성불안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특성불안의 상관관계에서는 미혼성인자녀의 학력, 소득, 부모의 결혼형태가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독립변인들이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경로모형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 지각된 비난은 자아분화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총 8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과다관여와 지각된 비난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한편,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에 있어 미혼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 수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번째 단계에서는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로모형을 통하여 총 7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자녀분화, 자아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지각된 비난으로 나타났으며, 과다관여는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를 통하여 특성불안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인 지각된 비난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은 높게 나타났으며, 과다관여가 적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높게 나타나 특성불안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미혼성인자녀의 소득은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분화는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가족 내 연결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부모-자녀분화는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상호작용과 가족기능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가족, 타인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대처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 건강수준은 물론 심리적 특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분화 수준은 높지만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성(we-ness)'이라는 가족 결속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써, 개인보다는 '우리'를 더욱 중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아닌 '가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모-자녀분화가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의 특성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유대관계와 친밀성이 높아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개인이 가족 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즉, 가족 외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혼성인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유대관계나 친밀성, 분리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가족 외적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스트레스 수준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의 방향과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면, 첫째, 가족관계의 연구와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에 제공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교적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동, 청소년 대상이 중심이 되어 친밀감, 애착, 결속력, 독립성 등에 관한 관심이 많았으나, 성인초기에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생애 발달과정에 있는 개인이나 각 가족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서구 문화권에서 측정되는 도구들이 국내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성이 적절한지에 관해 각 발달시기별 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주기상 자녀의 진수기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각각 부모와 성인자녀를 위한 새로운 관계 탐색에 대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상담에서 미혼성인자녀의 결혼 전 단계 상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가족문제를 다룰 때 결혼 전 단계에서 내담자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원 가족 분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것은, 이 단계가 가족생활주기상 건강한

결혼생활의 시작이 되며 개인의 내적 성장에도 중요한 분리성, 독립성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혼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과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겪는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다 효과적인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실(2002). 자기개념,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2003). 군 병사들의 불안과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25-640.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8(2), 33-49.
- 백양희(1998).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혜정, 최외선(1999). 고등학생의 특성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6(1), 153-171.
- 송정아, 최규련(2004).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하우.
- 우소연(2002).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2005). 한국가족의 건강성의 질에 대한 연구. Mexican International Family Strengths Conference 2005.

- 이상주(1977).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조. 국가 발전과 청소년, 행동과학연구소, 서울청소년회관, 73-100.
-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영식, 정선호(1996). 발달학적 관점에서 본 불안-우울 감정분화. 신경정신의학, 35(1), 86-95.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1), 117-140.
- 이진하(2004).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1996). Intergenerational Dynamic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Adult's Emotional Ti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Purdue University.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영주(2002).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207-221.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지현(1999). 가족내 표현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수, 백국현, 조성욱, 박일환, 정유석, 유선미(2004).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불안성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5, 224-232.
- 홍창희(2003). 정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정서 표현성의 매개모델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ohler, B. J., & Grunebaum, H. U. (1981). *Mother, Grandmothers, and Daughters : Personality and child care in three-generation families*. N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and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y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urman, A. S., & Kniskern, D. P. (199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Hahlweg, K, Goldstein, M. J., & Nuechterlein, K. II., et al. (1989). Expressed emotion and patient relative interaction in families of recent on set schizophren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11-18.
- Hollander, C. E. (1983). Comparative family systems of Moreno and Bowen.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6(1), 157-163.
- Hooley, J. M., & Teasdale, J. D. (1989). Predictors

- of relapse in unipolar depressives: Expressed emotion, marital distress, and perceived critic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29-235.
- Hubschmid, T., & Zemp, M. (1989). Interactions in high and low-expressed emotion famili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4*, 113-119.
- K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nudson-Martin, C. (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 to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35-46.
- Leff, J., & Vaughn, C. (1985). *Expressed Emotion in Families: Its Significance for Mental Illness*. New York: Guilford.
- Miklowitz, D. J., Goldstein, M. J., & Fallon, I. R. H., et al. (1983). Interactional correlates of expressed emotion in the families of schizophren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4*, 482-487.
- Rivkin, I. D. (2000). The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on on adjustment to stressful ev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octoral dissertation.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hields, C. G., Frank, P., Harp, J. J., McDaniel, S. H., & Camberwell, T. L. (1992). Development of Family Emotional Involvement and Criticism Scale(FEICS): A self-report scale to measure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4), 395-407.
- Strachan, A. M., Goldstein, M. J., & Miklowitz, D. J., (1986). Do relatives express expressed emotion? In Goldstein, M. J., Hand, I., & Hahlweg, K(Eds.), *Treatment of schizophrenia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52-58). Berlin: Springer-Verlag.
- Szmukler, G. I., Bckowitz, R., & Eisler, I., et al. (1987). Expressed emotion in individual and family settings: a compara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1*, 174-178.
- Valone, K, Norton, J. P., & Goldstein, M. J., et al. (1983). Parental expressed emotion and affective style in an adolescent sample at risk for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99-407.

(2005년 2월 28일 접수, 2005년 9월 12일 채택)